

쥐

보스턴市の 쥐떼 恐怖

12톤의 힘 가진 이빨...아기에 덤비는 亂暴性
地下道 보수때 大移動? 박멸책에 苦心

美매사추세츠 州都인 보스턴시민들은 조만간 있을지도 모를 쥐떼의 공포에 떨고 있다.

보스턴市가 도로건설계획으로 2년후부터 쥐들의 보급자리였던 기존의 지하도등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공사가 시작되면 쥐들은 지하세계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올라오리란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보스턴시내의 빌딩 주택 식당등 어느 곳에서든지 쥐떼는 설치고 다닐 것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쥐들의 지상출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노르웨이 쥐」라고 불리는 보스턴 쥐들은 한번 물론 12톤의 힘을 가할 정도로 아주 튼튼한 이를 가지고 있으며 아기까지 공격하는 난폭성으로 유명하다.

시민들의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가 보스턴市당국은 공사가 시작되기전 쥐를 없애기위해 쥐 전문가를 초빙하는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전직 생물학교수이며 설치류 문제의 대가인 윌리엄잭슨 씨(62)가 바로 주인공.

언론에서는 그를 「쥐황제」 「파이드 파이퍼(피리로써 쥐를 다루는 전설속의 인물)」라고 부른다.

그는 자신이 고안한 강력한 쥐약으로 쥐를 퇴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하에는 쥐약을 사용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쥐약과 덩을 놓는다는 것이다.

그 쥐약은 내부출혈과 신진대사의 방해를 유도하여 쥐가 죽게 고안되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잭슨같은 몇몇 사람들이 시내의 모든 쥐를 없앤다는데 회의적이다. 마살 군도에서 실시된 핵실험에서도 쥐가 살아 남았다는 사실도 있다.

잭슨의 쥐박멸이 성공한다해도 굉장히 많은 쥐의 시체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시체처리 또한 문제가 될 것 같다.

(3.7. 港都日報)

山火

美國립공원 火魔악몽 딛고 새 丹粧 한창

26억坪규모, 6개월간 樹林태워

道路등 一部分 補修, 그대로 保存

불경증·自然의 復元力보일러

「엘로스톤」공원관리자들「봄맞이 異狀없다」

「여행자의 메카」엘로스톤—

끝없이 펼쳐진 침엽수림과 곳곳에 천연의 絶景을 이루고 있는 협곡들... 시간마다 꿈틀거리는 흰 물기둥을 뿜어내는 간헐천들과 크고작은 폭포들... 눈덮인 한겨울철에도 지하의 뜨거운 용암작용으로 진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지구의 이방지대」, 여기에 온갖 야생동물들과 이름모를 야생수목들이 한데 어우러져 대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그랜드 캐년(대협곡지대)과 더불어 미국이 자랑하는 「秘景중의 비경」인 엘로스톤국립자연공원이 지난해 6개월동안이나 계속됐던 대화재의 후유증을 씻어내기위한 겨울단장이 한창이다.

미국서북부 와이오밍州 산록지대의 26억8천만평(88만6천ha)엘로스톤국립자연공원에 뜻밖의 火魔가 찾아든 것은 지난해 6월. 州당국의 필사적인 鎮火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산불은 지난11월까지 계속 이어져 전체 수림의 절반가량에 피해를 입혔다. 간헐천이 밀집되어있어 관광객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모아온 「올드 페이스풀」지대는 산불이 진압된 11월께까지도 이렇다할 피해를 입지않은채 현란한 자태를

지켜낸 것으로 밝혀져 관계자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게 해주었다.

당초 산불현장을 증명한 NBC CNN 등 美TV방송사들의 요란스런 호들갑으로 옐로스톤이 쑥밭이 된 것으로 생각했던 미국인들의 상상과는 달리 火魔피해가 그리크지 않다는 게 공원관리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자극적인 뉴스거리를 만들려는 언론들의 「과대포장」으로 화재가 실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도됐을뿐 옐로스톤의 산불피해는 충분히 극복할수있는 정도라고 입을 모으고있다.

공원측은 새봄을 맞아 이곳을 다시 찾을 관광객들을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진입로 등 일부 시설의 보수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원전역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해줄 방침이다.

산불피해의 정도가 당초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도 있지만 이 보다는 피해의 현장을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산불의 끔찍함」을 깨우치게 하자는 의도에서이다. 또 대자연이 산불의 「침탈」을 어떻게 이겨내며 스스로 복원해 가는가를 내방객들이 직접 지켜보게 함으로써 「대자연의 위대한 복원능력」을 보여주자는 의도도 포함되어있다.

이 국립공원의 봄 바비관리소장은 「도심의 시민공원이란 먼 언제나 깔끔하게 단장되어있어야 하겠지만 자연공원은 말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옐로스톤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다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옐로스톤공원 주변의 상인들도 지난해의 산불피해가 자신들에게 도리어 「대목」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있다.

공원측의 조사결과 산불로 인한 「대참사」를 머리속에 그렸던 미국인들이 옐로스톤의 자연복원과정을 직접 지켜보기위해 울분부터 대거불려들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불이 한창 타오르던 지난해 10월 공원측이 잠시 내부를 공개했을때 옐로스톤은 온통 관광객들로붐벼 史上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대자연의 위대한 힘은 火魔의 농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옐로스톤관리소측의 말처럼 옐로스톤공원은 또다른 멋을 풍기며 울분에 새로운 자태를 드러낼 모양이다.

(3.5. 한국경제)

殘忍한剪枝와 까치의 눈물 住宅街 風景은 왜 保護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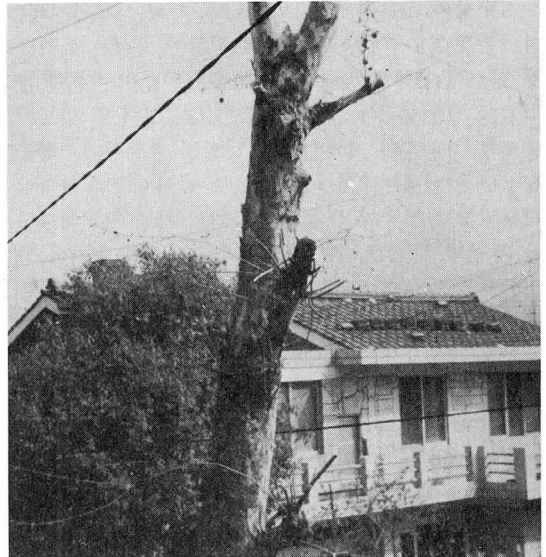
▲住宅街車道옆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던 15m의 「프라타너스」 老木을 剪枝하는것 까지는 나무랄수 없지만 1년동안에 걸쳐 지은 새둥지에서 알을 품어 이제 곧 孵化될 상태였던 까치의 「둥지」까지 무참하게 날려버리는 非情한 剪枝方法은 야만적이란 非難을 받을만하다. 지난4월17일서울은 평구응암동39번지에서 구청직원과 한전 직원이 합동으로 剪枝한 것으로 알려진 이작업으로 애써 지은 둥지와 부화직전의 새끼들을 잃은 어미 까치가 있다. 「왜 내새끼를 죽였나... 내둥지는 어디로갔나... 아이고... 아이고, 이나쁜 인간들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듯 애처롭기만하다. 둥지가 있을때는 아침7시경이면 기쁜소식의 傳聲처럼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던 「까치」들.

이젠 둥지만들 나무가 사라졌으니 안타깝다. 까치가 사라진 쓸쓸한 마을이 됐다.

▲山林보호도 중요하지만 住宅街의 金保護도 区庁公園綠地課에서 신경을 써주어야겠다는 주민들의 소리. 10年前이곳에는 까치둥지가 있던 나무가 5~6개 있었으나 슬금슬금 나무들을 베어내는통에 사라지고 이제남은 둥지마저 사라졌다. 이둥지도 썩은 둥지였는데 갈곳없는 까치들이 작년 여름부터 나무가지를 물어다 애써 補修(?)한것.

이웃뒷산에도 얼마전 누군가가 참나무 몇그루와 고목을 벌채해 버렸는데 아무도 말이없다.

▲더욱이 이웃深澤寺 아래있는 두箇의 藥水湯에는 새벽3시부터 밤1시가넘도록 거의 24시간 동안 이 약물을 애용하는 數천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으나 「수질검사」만 착실히 할뿐 山위에서 불을 피우는 물저각자의 탄소를 양고 있는 것은 빈축거리.



▲사진 : 까치둥지까지 날린 잔인한 전지 광경

「同定」잘못된 標本들이 많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립과학관 종합전시관에 진열될 한국호랑이(英名=시베리아 호랑이)와 반달곰. 늑대등의 박제부분제작을 완료한 本誌連載「自然公園과 野生鳥」의 필자인 조류연구가 李正雨씨에 의하면 한국호랑이는 지상에서 멸종돼가는 상태라한다. 그런데 중국 吉林省에서는 하얼빈 원교에 호랑이 동물원을 건설할 예정이라는 외신도 있어 멸종을 방지할 노력이 중국서도 일어나고 있는점에 유의할만.

그는 모대학자연박물관과 일부 표본관에 「同定」(분류해서 이름을 찾을)이 잘못된 것이 눈에 띄어 이러한것은 빨리 바로잡아야 할것이라고 개탄하기도.

住宅街의 自然綠地를 살리자